

호천 테마 독서 1학년 "시간"

전주호천초등학교 도서관



〈때각때각 시간 박물관〉 권재원 / 창비

칙칙폭폭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계가 산산조각 나서 시간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꿀꿀이가 시간을 시계로 착각하고 말하자 찹찹이와 코끼리 선생님이 시간과 시계의 차이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시간을 재는 시계에 대해서까지 말이죠. 코끼리 선생님과 동물 친구들은 무사히 탈출해 시간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보이니?〉 페르닐라 스탈펠트 / 시금치

시간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은 눈에 보일까요? 시간을 따돌리거나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다른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이 느리게 갈 수도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시간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리 집의 시간〉 사무엘 카스타뇨 메사 / 우리나라비

하루에도 몇 번씩 종소리가 나는 괄종시계. 가족들의 시간은 종소리에 따라 결정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잊지 않고 시계태엽을 감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종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화초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수프도 끓어오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우리 집은 다시 종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시간이 지워져요〉 질 바움 / 한올림어린이

오늘 아침, 할아버지가 나를 "프로스퍼"라고 부르며 활짝 웃었어요. 프로스퍼는 할아버지의 동생으로 전쟁 때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좀 당황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니 나도 기뻐요. 나는 이제부터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할아버지한테 받기만 했지 뭔가를 해준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